유료방송 시장, ‘M&A 바람’ 다시 분다

LG유플러스가 노린 케이블TV…어딜까?

CJ헬로 인수설에 “특정업체 한정 안해”
홈미디어 1등 목표로 가입자 확대 노려
시장점유율 33% 제한 규제도 6월 일몰

이슈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다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18일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도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물로 지목됐던 CJ헬로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CJ오쇼핑의 경우 “현재 CJ헬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CJ오쇼핑의 공식 부인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일단 ‘설’에 그쳤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 추진을 공식화하는 계기도 됐다.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 추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케이블TV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수 부회장도 지난 2016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케이블TV 사업자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사업자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를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가 1등을 목표로 한 홈미디어 시장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일단 소문에 그쳤지만 LG유플러스가 만일 CJ헬로를 인수한다면 단숨에 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순위는 KT(30.45%), SK브로드밴드(13.38%), CJ헬로(12.97%), 티브로드(10.59%), LG유플러스(10.42%), 딜라이브(6.66%) 순이다.

미디어 시장이 요동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합종연횡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지만 이미 2015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시도한 바 있다. 최근엔 딜라이브가 매물로 나와 여러 사업자들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정기업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유료방송 M&A전에 속도를 더할 요소로 꼽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가장 강력한 ‘E-클래스’가 온다

벤츠, AMG E 63 4MATIC+ 국내 공식출시
최고 출력 571마력, 제로백 3.5초 고성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 중형 세단 인기 모델인 ‘더 뉴 E-클래스’의 최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

메르세데스-AMG가 추구하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최고 출력 571마력, 최대 토크 76.5kg.m의 파워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5초로 E-클래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에는 AMG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장착했다. 가변적으로 4개의 실린더 작동이 멈춰 연료 소비를 낮춰준다.

가변식 AMG 퍼포먼스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다양한 구동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눈길과 빗길, 마른 노면 등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앞 차축과 뒤 차축의 완벽한 토크 분배가 가능하며, 후륜구동에서 사륜구동으로, 다시 사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매끄럽게 전환된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E-클래스 최고성능 모델이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이 결합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도 기본 탑재된다. 보행자와의 추돌위험이 있을 시에 운전자의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스티어링 휠 동작을 보조하는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보이지 않는 사각 지대에 있는 차량들을 파악해 충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차량 및 보행자 등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율부분제동을 실시하는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의 첨단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쉐보레 볼트EV, 3시간 만에 사전계약 매진

올해 수입 물량 5000대 완판 ‘인기 폭발’

장거리 전기차 시대를 연 쉐보레 볼트EV(Bolt EV·사진)가 17일 사전계약 개시 3시간 만에 올해 도입물량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 쉐보레는 올해 볼트EV 국내 도입 물량을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5000여대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난 15일 사전계약을 접수했으나, 계약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17일 오전 9시에 새롭게 계약 접수를 개시한 바 있다.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이어가며 장거리 전기차 시장 선점에 성공한 볼트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고강성 경량 차체에 60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대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2018 볼트EV의 가격은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보조금 개선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볼트EV는 최대치인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올해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원성열 기자

카카오 “10억 달러 해외투자 유치”

카카오는 10억 달러(약1조원)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로 공시하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홍콩, 뉴욕, 런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했다. 당초 36회로 예정된 투자자 미팅은 현지의 큰 관심으로 총 55회까지 늘어났으며, 이후 실시한 수요예측에서도 대규모 청약이 이어져 조기에 GDR 발행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GDR은 2월초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GDR 발행 가격은 17일 종가 대비 3.7% 할인된 주당 12만9004원으로, 총826만1731주를 새로 발행하게 된다. 10억 달러는 최근 10년 내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 시장을 통해 조달한 최대 규모 금액이다. 카카오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게임, 웹툰, 동영상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업체 중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4차 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원천기술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특허청, SKT 평창 캠페인 광고 중단 권고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특허청이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특허청은 문제가 된 광고가 SK텔레콤을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오인·혼동케 해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년 KT가 공식후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듬해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광고모델로 계약하고, 광고제작사에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명근 기자

위동항운유한공사, 업계 최초 중국 4A 물류기업 인증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동항운유한공사가 한중카페리업계 최초로 중국 4A 물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총 27개 항목의 서류심사와 중국물류여채구연합회 평가심사팀의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1월9일 인증받았다.

이번에 위동항운이 취득한 A급 물류기업 인증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 비준, 공표한 제도다. ‘물류 기업분류 및 평가표준’에 따라 기업 경영상황, 자산상황, 설비시설, 관리 및 서비스, 직원 자질, 정보화 수준 등 6개 항목, 18개 지표를 통해 기업의 자질을 평가하는 국가급 물류기업 종합평가 인증제도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업계 최초로 안전분야 인증인 중국 안전생산표준화 3개부문(해상운송, 육상운송, CY물류) 1등급 인증을 취득한 위동항운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한중카페리업계 최초이자 중국 웨이하이시 최초의 4A 물류 기업 인증 취득이라는 영예를 더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날씨와 생활

19일(금)

해뜸 07:44 / 해짐 17:41 달뜸 08:57 / 달짐 19:43

서울	인천	춘천	강릉	청주	대전
20/0	10/0	10/0	10/0	10/0	10/0
-4 / 5	-3 / 3	-7 / 5	1 / 9	-4 / 5	-4 / 6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지역 / 날씨
10/0	10/0	10/0	10/0	10/10	강수 확률(오전/오후) / 최저 최고기온°C
-3 / 6	-3 / 8	-3 / 8	2 / 11	4 / 10	

산 날씨

북한산	-8/5	계룡산	-6/5
설악산	-1/8	덕유산	-8/5
오대산	-8/5	무등산	-3/8
소백산	-5/4	지리산	-5/9
속리산	-7/6	한라산	-1/6

바다 날씨

인천송도	-3/3	안면도 꽃지	-4/5
제부도	-5/4	변산반도	-4/6
경포대	1/9	거문도	1/9
속초	-2/8	해운대	2/11
대천	-3/5	제주도	5/10

20일(토)

해뜸 07:44 / 해짐 17:42 달뜸 09:32 / 달짐 20:40

서울	인천	춘천	강릉	청주	대전
20/0	20/0	20/0	0/0	20/10	20/0
-2 / 6	0 / 5	-6 / 5	1 / 8	-4 / 6	-5 / 8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지역 / 날씨
20/10	20/10	20/10	20/10	20/10	강수 확률(오전/오후) / 최저 최고기온°C
-4 / 8	-2 / 9	-3 / 8	2 / 11	4 / 11	

산 날씨

북한산	-6/5	계룡산	-6/7
설악산	1/7	덕유산	-9/6
오대산	-8/4	무등산	-2/9
소백산	-5/4	지리산	-5/9
속리산	-7/7	한라산	0/6

바다 날씨

인천송도	0/5	안면도 꽃지	-1/6
제부도	-3/6	변산반도	-4/8
경포대	1/8	거문도	1/10
속초	-1/7	해운대	2/11
대천	-2/6	제주도	6/10

21일(일)

해뜸 07:43 / 해짐 17:43 달뜸 10:05 / 달짐 21:38

서울	인천	춘천	강릉	청주	대전
20/30	20/30	20/30	20/30	0/10	0/10
-4 / 6	-3 / 4	-7 / 4	-1 / 5	-4 / 6	-4 / 5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지역 / 날씨
0/10	0/10	0/10	0/10	20/20	강수 확률(오전/오후) / 최저 최고기온°C
-3 / 7	-2 / 8	-1 / 8	2 / 9	4 / 11	

산 날씨

북한산	-7/4	계룡산	-6/5
설악산	-9/1	덕유산	-3/7
오대산	-10/5	무등산	1/9
소백산	-7/6	지리산	0/8
속리산	-7/6	한라산	4/11

바다 날씨

인천송도	-7/4	안면도 꽃지	-6/5
제부도	-7/4	변산반도	-3/7
경포대	-9/1	거문도	1/9
속초	-9/1	해운대	0/8
대천	-6/5	제주도	4/11

e스포츠 대회 ‘오버워치 리그’ 시청자수가 개막 첫 주 나흘 동안 10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오버워치 리그’ 개막 주간 1000만명 시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개막한 도시 연고제 기반 e스포츠 대회 ‘오버워치 리그’가 첫 주 나흘 동안 시청자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트위치와 MLG, 그리고 중국 내 스트리밍 파트너를 통해 오버워치 경기를 시청했다. 전 세계 독점 디지털 방송 파트너인 트위치의 경우 개막일 경기는 분당 평균 시청자수 40만 8000명을 기록했고, 개막 주간 전체로도 28만명의 평균 분당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오버워치 리그는 트위치와 MLG, 오버워치 리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오버워치 리그 첫 시즌은 6월까지 이어지며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은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 모든 정규 경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마련된 ‘블리자드 아레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진다. 개막 주간 모든 경기 입장권이 전석 매진되는 등 현장 응원도 뜨거웠다는 게 블리자드 측 설명이다.

김명근 기자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경제부 02 2020 1062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